

천년 베일 벗은 中 법문사 비밀



▷佛진신보살상

‘부처의 진신사리 1,2’

웨인·상청웅 지음 / 심규호·유소영 옮김
일빛 / 각 1만2천8백원

중국 산시성 푸평현에는 법문사라는 이름의 유서 깊은 절이 있다. 2세기 무렵 한·위나라 시대에 첫 삽을 뜬 뒤 당나라 초기에 완공돼 황실 사원으로 이름 높았던 이 절에는 명나라 때 쌓았다는 13층탑이 있다. 사리가 담긴 ‘진신보탑(眞身寶塔)’이다. 지난 1986년 탑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만 것은 그 절이 천여년 세월 동안 간직해온 놀라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이듬해인 1987년 이 탑을 재건하려고 기반 정리작업을 하던 발굴조사단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허물어진 탑 밑에 몸을 숨기고 있던 거대한 지하 궁전이 있었다. 그곳에서 축천무후의 자수치마, 비색 도자기를 비롯해 1천여점에 이르는 당나라 황실의 보물들이 쏟아졌다. 그뿐이 아니다. 갓 출토된 유물들을 조사하던 학자가 발견한 보물함에는 사료로만 전해오던 석가모니 부처의 진신사리가 담겨 있었다. 1113년 동안 간직해온 법문사의 비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규모는 작지만 유물 가치가 진시황의 병마용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발굴로 ‘세계문화의 급강좌(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수도한 자리)’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였다.

탑 재건중 진신사리·唐 황실 보물 발견 불교유입 과정 등 픽션·다큐멘터리로

〈부처의 진신사리〉는 천여년 동안 진신사리를 간직해온 법문사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들과 유물발굴 과정을 세심 삼아 660여쪽 분량에 풀어낸 소설이다. 그 날씨는 법문사를 에워싸고 명멸했던 당나라 시대



▷佛사리가 들어있는 ‘유금생봉문은관’

인물군상들이다. 사리가 발굴되는 과정은 물론 지하 궁전에서 발견된 여러 보물들중 법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을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섞어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다. 특히 발굴과 유물 관련 자료를 상당한 고증을 거쳐 정확히 인용·분석했다. 법문사 지하궁전 발굴을 통해 당나라 역사와 중국 불교의 유입·발전에 대한 인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이 책은 당시의 불교사는 물론 정치·문화·역사까지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지은이 웨인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함께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 전래된 과정과 불멸을 구하기 위해 서역으로 사람을 보내는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 인도의 중국 불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어려운 발굴 용어와 불교·역사 용어는 가장 최근 대만에서 출간된 판본과 학술자료를 참고로 해 주석을 달아 놓아 쉽게 읽힌다. 또 지하궁 단면도와 중국 고대 19차 석가모니불 진신사리 보탑 분포도, 법문사 연혁을 비롯해 70컷의 컬러 화보 사진과 그림, 도표 등은 다큐멘터리 한편을 감상하는 것처럼 입체감을 준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스님들의 사관학교’ 시절 에피소드

‘도반 1,2’

글·그림 / 원성 스님
리즈 앤 북 / 각 9천원



동승의 작가 원성 스님이 자신의 해인사 강원(講院) 시절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첫 소설 <도반>을 펴냈다. 이 책은 군대보다 규율이 엄격하다고 해서 ‘스님들의 사관학교’로 불리는 4년의 강원 수행과정 중 첫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총 30편의 에피소드로 구성한 것이다.

아직도 행자 티를 벗지 못한 초보 스님들이 강원원의 혹독한 규율을 적용해 가는 과정을 잔잔하게 묘사한 이 소설을 읽다보면 절집이란 곳도 결국

속세사람들이 사는 곳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 책에는 지인 스님을 비롯해 강원에서 만난 천재 동자승 혜솔 스님, 괴물 광진 스님, 서울 객쟁이 무량 스님 등 15명의 도반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겨울이면 눈싸움도 하고 봄에는 꽃구경 삼아 포행도 떠나는 등 자연과 하나되는 체험을 통해 수행의 깊이에 더해간다는 게 즐거웠다. 이 소설 말고 직후인 지난 3월초 4년 예정으로 영국 유학을 떠난 원성스님은 책 서문에서 ‘주인공 지인스님이 강원을 졸업할 때까지 소설 ‘도반’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먹고 화선지 대신 수채화로 삼화 100여점을 그렸다. 이 소설은 ‘도림픽처스’와 영화판권 계약을 맺었다. 영화는 내년 여름 개봉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불교 공예미술의 정수’ 소개

‘적멸의 궁전 사라궁전’

신대현 지음
한길아트 / 1만5천원



모든 탑에 사리를 모실 수는 없었으므로 보석류로 사리를 대체하기도 했지만 진신사리처럼 경배했으므로 사리장엄을 만든 정성은 변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리장엄은 ‘불교 공예미술의 정수’로 불린다.

이 책은 사리장엄에 관한 설명이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책은 첫 부분에서는 사리신앙(사리를 받드는 신앙)과 사리장엄에 관해 개괄적으

로 설명했고 이어 한국어에서 발견된 사리장엄 각각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갑은사에는 682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삼층석탑 2기가 있다. 서탑에서는 1959년, 동탑에서는 1996년에 해체 복원을 하면서 사리장엄이 발견됐다. 서탑에서는 사리 1과, 동탑에서는 사리 54과가 나왔다. 두 개의 사리장엄은 모두 사각형으로 된 금동 사리 외함(外函)과 내함(內函), 유리 사리병으로 구성됐다. 외함에 새겨진 사천왕상의 부조 및 내함의 난간과 연꽃 조각은 신라 공예기술의 우수성을 엿보게 한다.

김주일 기자

새로운 책



위빠사나 수행법·법문 소개

‘위빠사나 수행의 길’

거해 스님 엮음
샘이 깊은 물 / 1만2천원

빠알리어의 ‘위(वि)’와 ‘파사나(Passana)’의 합성어로 ‘자신의 참다운 성품 수행을 통해 직접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0년간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문화권에 건너가 근본불교 수행에 전념한 거해 스님의 책 <위빠사나 수행의 길>에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위빠사나 수행법과 미얀마 마하시 수도원장 마하반딧 우벤디파 스님의 법문들이 소개돼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위빠사나는 움직이건, 앉아 있건, 생각하건, 말하건, 침묵을 지키건 상관없이 늘 정념(正念)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원 제목은 <깨달음의 길>이었으나 이번에 개정하면서 제목을 바꿨다.



봉사·불교귀의 통해 속직

‘수미산 가는 길’

김용철 지음
뿌리출판사 / 8천원

소설 <수미산 가는 길>은 여주인공 유화가 어려서 실수로 사촌을 죽인 죄의식과 중학교 교사가 된 후 저지른 불륜의 죄책감 등으로 번뇌하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참회와 구원의 길을 떠나 장애아동들을 돕는 봉사와 불교적 귀의를 통해 속죄한다는 내용이다.

작가는 인간이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두 개의 얼굴 즉 야누스적인 모습을 제시하면서 현대인들이 돈과 명성, 지위와 애욕 때문에 위선과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는 실상을 이 소설을 통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돌부처 만남서 제모습 발견

‘돌부처님의 나들이’

지호진 글 / 서석원 그림
행복한세상 / 7천원

산속에, 절터에, 오래된 마을 한 곳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만 같은 돌부처가 나들이를 한다. 버스를 타기도 하고, 뱃사공이 되기도 하고,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만나기도, 원두막에서 한가로운 여름날을 보내기도 한다. 또 다리가 아프면 당나귀를 타고 여정을 계속 잇는다.

<돌부처님의 나들이>에서 우리는 돌부처와 여정을 함께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외로움, 즐거움, 슬픔을 공유할 수 있다. 돌부처의 여정 마디마디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와 시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여시이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가장 행복한 공부 | 형화스님 | 시공사 |
| 2 | 유식30송 | 서광스님 | 불광 |
| 3 | 물은 답을 알고 있다 | 에모투 마사루 | 나무심는사람 |
| 4 | 스님 사랑하면 인되나요 | 월성스님 | 웃는 나무 |
| 5 | 소리없는 소리 | 생심사역원 | 시월 |
| 6 | 내가 누구? | 경봉스님 | 명정 |
| 7 | 힘 | 빅 낫 한 명 | 진 |
| 8 | 기도 | 일타스님 | 효림 |
| 9 | 법구경 | 석지현 | 민족사 |
| 10 | 초의 | 한승원 | 김영사 |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여시이문 전화: (02)737-0695

교양이심 전화: (02) 322-0036 팩스: (02) 322-3674 홈페이지: www.c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031) 945-2900

일본 열도를 감동시킨 화제의 책!

자아를 속박하는 고정관념이 보일 때까지 당신을 무너뜨리는 책!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평

달마, 머리를 치다 1, 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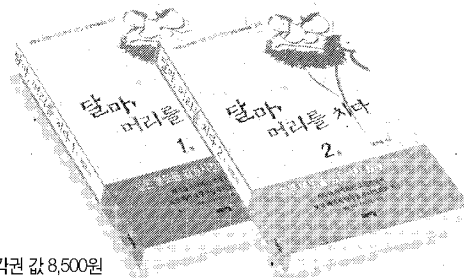
전등록傳燈錄 마침내 책으로 나온다!

달마 이후 대선사들이 나는 선문담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깨달음의 말씀

범의 전사가 있었다. 범회는 제 유병한 마조 도일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에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대답했다.
“이리 갈수록 오히려 범회가 공손히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마조가 한 구멍 뚫어먹었다.
그리고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귀가 여섯이 있어서 온갖 온갖 모의를 할 수 없다.
내일 다시 오나라.”

-마리에서 벗어나라, 중에서

素空慈 지음 | 각권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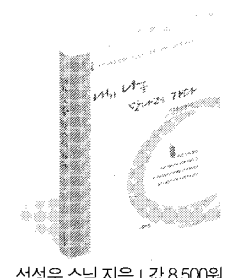


꽃과 소쇄한 바람이 가득찬 산사에서 들려주는 신선한 법문!

내가 나를 만나러 가다

素

마음 명상 태고 차와 선시의 향기를 따라
스스로 마음자리의 등불을 밝혀라



석성우 스님 지음 | 8,500원

석성우 스님이 전하는
진실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어지러운 세상에 스스로 길을 비추게 하는 명상.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 위한 태아 교육법



경허 큰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뒤편 산, 빛은 장안도 먼 지 결림도 없이 문정 구경 구경이다
경허 스님의 글은 만민이요 사이다. -종암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번역·김영진 | 8,500원



경허 큰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종 다스리고 스스로 밝히는 해 돋음이 될 것이다.
-호암일보 (리얼타임)
경허 큰스님 지음 | 11,000원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는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 담담하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줄기이다 -종암일보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 지음 | 9,000원